

이스라엘-하마스 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

| 요약 |

- (진행 양상 및 확산 가능성) 양측 간 전쟁은 우려 속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 공습으로 확대되었으나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
 - 작년 10월,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의 원인은 이스라엘 내 극우화 기조 강화와 사우디-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
 - 지난 4월 이란과 이스라엘 간 공습이 이어지면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단기적으로 대리전이나 이란의 참전으로 인한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
- (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) 이번 전쟁이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
 - 양국이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0.28% 미만에 불과하고, 대체 공급망이 대부분 존재해 확산이 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영향은 낮은 편
 - 물류비와 같은 간접 비용 상승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물류비용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산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
- (유가 상승이 미치는 영향)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크며 유가 상승 전망이 상반되고 있어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
 -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비용 상승 압력은 정유, 화학, 도로운송, 항공운송 등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
 - 양측 간 국지전이 지속될 경우 전 산업 0.7%, 제조업 1.2%, 서비스업 0.32%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되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, 전 산업 3.02%, 제조업 5.19%, 서비스업 1.39%의 생산비용 상승이 예상
- (시사점) 이번 전쟁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추이를 관찰하며 장단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
 - 미국 대선 이후,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거나 이란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추이 관찰이 필요
 - 해양플랜트, 유조선, 건설 등 일부 산업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향후 추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
 - 우리나라는 유가 상승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정자금 등을 적절히 활용해 대응해야 하나 장기적으로는 유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는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

1. 이스라엘-하마스 전쟁의 진행 양상과 확산 가능성 전망

▣ 2023년 10월 7일,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이어지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대

- 하마스는 이스라엘 치안장관의 알-아크사 방문을 공격의 이유로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가자 지구에서 로켓 포격을 시작으로 육로, 공중, 바다 등을 통해 이스라엘로 침투
- 이스라엘의 극우화에 따른 대(對)팔레스타인 강경책도 원인 중 하나이나 기저에는 사우디-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막고 반시온주의 정서를 결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
 - 아브라함 협정의 결과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수교가 합의되면서 팔레스타인의 고립감이 증대되는 가운데 사우디-이스라엘 정상화 협정이 가시화¹⁾
 - 사우디는 협정 추진이 좌초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²⁾ 취했었으나 전쟁 이후 아랍 지역의 인식을 고려하여 외교 정책 우선순위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³⁾
- 이스라엘은 공습-지상군 투입-완충지대 설립이라는 3단계 작전으로 하마스를 압박
 - 이스라엘 방위군(IDF)에 의하면 가자지구 내 하마스 부대 24개 중 18개를 파괴했으며, 가자 지구 북부에서 하마스 군사조직의 해체가 완료⁵⁾
- 2024년 4월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공습에 대해 이란이 책임을 제기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확산의 우려가 커졌으나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지 않은 상황
 - 미군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발사체의 99%가 요격에 성공⁶⁾
-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 이란 군사 인프라의 본거지인 이스파한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
 - 이스라엘 관리가 CNN과 한 인터뷰에 의하면 이는 이란에 진입하지 않고도 핵 시설 등을 포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란에 암시하고자 하는 의도⁷⁾
- 미국, EU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성명을 발표하며 휴전을 촉구하고 있으나 양측 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교착 상태
 - 하마스 측은 영구적인 휴전과 이스라엘 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는 반면, 이스라엘은

1)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인도-중동-유럽을 잇는 경제회랑(IMEC) 계획이 발표되는 등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수교 움직임이 선명해지고 있었음. 인남식(2023), 「2023 가자사태의 추이 및 함의」, 외교안보연구소, p. 9.

2) <https://www.reuters.com/world/middle-east/saudi-arabia-puts-israel-deal-ice-amid-war-engages-with-iran-sources-say-2023-10-13/>

3) <https://www.reuters.com/world/middle-east/saudi-arabia-puts-israel-deal-ice-amid-war-engages-with-iran-sources-say-2023-10-13/>

5) <https://www.bbc.com/korean/articles/cpr0972q7xdo>

6) <https://edition.cnn.com/2024/04/14/middleeast/why-iran-attack-israel-intl/index.html>

7) <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world/2024/04/19/israel-iran-hamas-war-news-gaza-palestine/>

포로 석방을 위한 일시적인 휴전을 원할 뿐 하마스 제거 전까지는 군사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

■ 레바논, 시리아 등이 개입하는 대리전과 이란의 참전으로 인한 지역전 모두 현재로는 가능성이 낮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또한 매우 낮은 편

- 이란은 대리인들을 이용해 미국, 이스라엘과 간접전을 치러왔으며, 이번 전쟁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
- 이란의 대리인 중 하나인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참전할 확률은 레바논이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낮을 것으로 분석⁸⁾
 - 헤즈볼라가 참전할 경우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돕도록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이란으로서도 원치 않는 결과
 - 또한 레바논은 2020년 디폴트를 선언하였는데 참전으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해양 유전 탐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레바논의 경제난이 심화될 우려
- 시리아 또한 내전을 겪은 직후라 참전 여력이 크지 않으며, 아사드 정권과 하마스와의 관계 상 참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
 -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공격할 시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⁹⁾, 시리아는 자국 내 이란 대사관이 공격당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
 - * France24와의 인터뷰에서 익명의 서방 외교관은 “아사드 정권은 하마스를 증오하고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할 생각이 없다”고 언급¹⁰⁾
- 이란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속해서 직접 개입을 원치 않는다는 시그널을 표출하고 있으며 경제난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 참전으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
 - 이란은 하마스를 지지하면서도 개입은 부정¹¹⁾해왔으며 공습에 대해서도 일회성의 정당한 방어임을 강조¹²⁾하는 등 자존심은 지키되 전면 대결은 피하겠다는 태도
 - 공격 당일 이란에서는 히잡법을 어기는 대상을 표적으로 누르(Nur) 캠페인이 시작되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통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의도로 파악
-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금원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경제난이 심각한 이란으로서는

8) <https://www.nytimes.com/2023/10/31/world/middleeast/hezbollah-lebanon-israel-gaza.html>

9) <https://www.france24.com/en/live-news/20240426-iran-ally-syria-strives-to-stay-out-of-gaza-war-experts>

10) <https://www.france24.com/en/live-news/20240426-iran-ally-syria-strives-to-stay-out-of-gaza-war-experts>

11) <https://www.nytimes.com/2023/10/10/world/middleeast/iran-israel-hamas-attacks.html>

12) <https://www.bbc.com/korean/articles/c19d4082xn3o>

선택하기 힘든 옵션이며 과거에도 실제 봉쇄로 이어진 경우는 전무

- 이란은 지난해 전년 대비 46% 증가한 약 430억 달러 상당의 원유를 수출¹³⁾했으며, 원유 생산량 또한 2024년 3월 325만 배럴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¹⁴⁾
- 미국이 석유 제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이란이 석유 구매자를 찾지 못한다면 해협을 폐쇄할 유인이 존재하나, 수익을 계속 창출한다면 해협을 개방하는 것이 이란에 이익
-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대리인을 통한 공격이 아니라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예외적
 -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매우 근접했거나 성공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이 경우,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므로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

■ 향후 사태의 진행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보에 좌우

-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적인 사정과 지지기반을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까지일지에 관해서는 추이 관찰이 필요
 - 이스라엘 채널 13에 의하면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분쟁이 장기화되면 안보실패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을 연기할 수 있고, 부패 혐의와 관련된 여러 건의 기소도 보류 가능¹⁵⁾
 - 휴전협정에 서명할 경우, 네타냐후의 지지세력인 극우주의적 정당 중 일부가 연정에서 탈퇴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네타냐후는 총리직에서 퇴진해야 할 것¹⁶⁾
- 미국이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압박할지에 따라 휴전 협상의 성공 여부가 좌우
 - 재선을 노리고 있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유가와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인 대다수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¹⁷⁾
 - * CNN 등 외신에 의하면 미국은 라파(Rapha) 침공 시 일부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¹⁸⁾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필요하다면 홀로 설 수 있다¹⁹⁾고 밝히며 공습을 시작

13) <https://twitter.com/TankerTrackers/status/1779578700477960396>

14) <https://www.bloomberg.com/opinion/articles/2024-04-14/iran-s-attack-on-israel-upsets-opec-seach-for-goldilocks-p-rice>

15) <https://www.middleeastmonitor.com/20231220-netanyahu-seeks-to-postpone-his-trial-due-to-war-on-gaza-claims-tv-channel/>

16) 이스라엘 내 초정통파인 하레딤(Haredim)이 이스라엘 정치에서 점점 더 큰 위상을 차지함에 따라 유대민족 국가법이 제정되는 등 강경한 팔레스타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란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.

17) <https://www.nytimes.com/2024/03/27/world/middleeast/military-action-americans-gaza.html>

18) <https://edition.cnn.com/2024/05/09/politics/bidens-rafah-warning-is-turning-point-in-us-israel-relations-and-a-battered-but-inevitable-rupture-with-netanyahu/index.html>

19) <https://www.bbc.com/news/world-middle-east-68980826>

- BBC 등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도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어²⁰⁾ 정권 교체 시 휴전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일부 존재
-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, 미국의 대선이 있는 11월 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
 -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지지 세력인 보수 세력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전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노출
 - * 외교안보연구원에 의하면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가속화되는 분위기²¹⁾
 - * 베니 간츠 전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2022년 “이스라엘이 최근 몇 년간 대비태세를 크게 강화했으며, 2~3년 안에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공격에 참여할 수 있다²²⁾”고 연설
 - 미국은 대선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을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후에는 이러한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이를 감안할 필요

2. 이스라엘-하마스 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

▣ 이번 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

-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0.28%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
 - 작년 우리나라의 대(對)이스라엘 수출은 19억 달러, 수입은 15억 달러로 주로 자동차와 합성수지를 수출하고,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수입
 - * 2021년 FTA 발효 이후 관세철폐효과²³⁾로 이스라엘과의 교역규모가 증가(2020년 6억 3,800만 달러, 2021년 9억 3,000만 달러, 2022년 12억 2,200만 달러)
 - 대(對)팔레스타인 수출은 5,400만 달러, 수입은 200만 달러로 영향이 매우 미미

20) <https://www.bbc.com/news/world-us-canada-68568586>

21) 인남식(2023), 「2023 가자사태의 추이 및 함의」, 외교안보연구소, p. 24.

22) <https://www.timesofisrael.com/gantz-tells-graduating-pilots-they-could-be-flying-to-attack-iran-in-2-3-years/>

23) 3년 이내 관세 철폐.

〈표 1〉 한국의 대(對)이스라엘 수출입 상위 품목(2023)

단위: 백만 달러, %

순위	품목명	수출액	대세계 수출 비중	순위	품목명	수입액	대세계 수입 비중
1	승용차	428	1.0	1	반도체제조용장비	1,543	9.2
2	기타자동차	393	3.9	2	전자현미경	356	38.4
3	전기자동차	268	1.9	3	분석시험기	173	8.5
4	합성수지	81	0.4	4	동괴 및 스크랩	96	1.8
5	건설중장비	51	0.7	5	의약품	80	0.5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주: MTI 4단위 기준.

- 일부 품목의 대(對)이스라엘 수입의존도가 높지만 공급망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 - 이스라엘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위 제품들의 경우, 수입금액이 작거나 대부분의 경우 대체 공급망이 존재
 - 이스라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주의 깊게 추적할 필요가 있으나 이스라엘 내 물류 시스템이 대체로 회복²⁴⁾되어 현재로서 수출입 이슈는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

〈표 2〉 한국의 대(對)이스라엘 수입의존도 상위 품목(2023)

단위: 달러, %

	품목명	이스라엘	세계	수입의존도	증감률
1212214090	기타 파래	2,548	2,548	100.0	1,787.4
2903620000	에틸렌 디브로마이드	45	45	100.0	-71.9
4408909192	흑단 단판 목재	790	790	100.0	0
9301902030	완전자동 라이플	2,875,082	2,875,082	100.0	-
2801302000	브롬	3,959,408	3,977,623	99.5	-17.0
8002000000	주석 웨이스트 스크랩	745	768	97.0	0
8526913010	항공기용 무선방향 탐지기	346,382	387,806	89.3	0
9305101070	리볼버 피스톨 손잡이	3,586	4,097	87.5	-
2939802000	히스트리오니코톡신, 테트로도톡신	11,996	15,661	76.6	52.1
9018902010	레이저자동식 외과수술용 기기	9,719,392	12,903,819	75.3	8.8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주: HSK10단위 기준.

- 일부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출 위축이 우려되나 2023년 기준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
 - 가금육 조제용 기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수출이 증가

24) <https://www.cello-square.com/mx-es/blog/view-955.do>

〈표 3〉 한국의 대(對)이스라엘 수출의존도 상위 품목(2023)

단위: 달러, %

	품목명	이스라엘	세계	수출의존도	증감률
8101940000	텅스텐과 그 제품(괴)	30,000	43,665	68.7	310.8
8805101090	항공기 발진장치	10,492	16,492	63.6	0
9205903000	아코디언 및 유사 악기	2,115	3,805	55.6	0
8438509000	가금육 조제용 기계	2,906,682	5,665,787	51.3	-4.1
4704290000	활엽수류 화학목재펠프	400	802	49.9	0
9012101010	반도체용 일렉트론 빔 현미경	10,076,000	24,704,152	40.8	0
7228609000	합금강 봉	3,058,183	10,074,300	30.4	10,952.3
1515909030	호호바유 및 분획물	24,775	81,852	30.3	0
8463100000	인발기	1,275,000	4,382,908	29.1	0
2849909010	탄화텅스텐	6,714,457	25,180,722	26.7	40.6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주: HSK10단위 기준.

- 이번 전쟁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전쟁 확대 경로에 따라 달라질 것
 - 이스라엘의 최대 수출품은 칼륨비료, 전자, 의료 및 방산 장비이며, 전쟁 확대 시 물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²⁵⁾
 - 대부분 공급망 다변화가 가능한 품목들이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가격 상승의 심화가 우려

▣ 전쟁으로 물류비와 같은 간접 비용 상승이 우리 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

- 전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함으로 인해 물류비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
 - 이스라엘-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럽-아시아 물류의 핵심인 수에즈 운하, 에너지 물류의 중추인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환승 지점과 지리적으로 근접
 -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리스크 할증, 노선 우회에 따라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
 - * 신용평가사인 피치(Fitch Ratings)에 의하면 2023년 10월 이후 아시아-유럽 노선 요금이 284% 올랐고, 다른 주요 동서부 노선 요금은 두 배 이상 인상²⁶⁾
-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과 운송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급 차질과 가격 인상에 대비할 필요

25) https://jp.tradingview.com/news/reuters.com,2023:newsml_L4N3BO47U:0/26) <https://www.reuters.com/graphics/ISRAEL-PALESTINIANS/SHIPPING-ARMS/lgvdnngeyvo/>

- 브뢰크먼 로지스틱스(Broekman Logistics)의 마르티진 타스마(Martijn Tasma)에 의하면 소비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²⁷⁾
 - * 테슬라(Tesla), 아디다스(Adidas), 스즈키(Suzuki) 등의 업체들은 운송 경로 변경으로 비용이 상승하고, 배송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
- 장기적으로는 물류 비용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진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
 - 후티 반군의 공격이 홍해와 바브 알-만데브를 넘어 아덴만까지 확산되었으나 사우디와 이집트의 상당한 우려와 개입을 고려할 때 상황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
 - * 해양 정보 회사인 윈워드(Windward)의 CEO인 에이미 다니엘(Ami Danie)은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 후 위험 구역이 홍해 지역에서 수백 마일까지 확장되었다고 밝힘.²⁸⁾
 - 또한 장기적으로 컨테이너 해운시장이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운송비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이거나 확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공급망 확보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

3. 국제 유가 상승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

▣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

- 우리나라는 경제의 석유 의존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며 이는 국제 유가 상승 시 상대적으로 비용 상승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함을 의미
 -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1위의 경제 원유 의존도(배럴/GDP만 달러)와 4위의 1인당 원유 소비량(배럴/명)을 기록²⁹⁾
 - * 우리나라의 경제 원유 의존도(5.7)는 브라질(5.87), 인도(6.41) 등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이며, 이는 중국(3.49)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1인당 원유 소비량 또한 일본(9.5)과 독일(9.0)의 두 배인 18.0배럴
 - 특히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이번과 같이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 시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
 - * KIEP에 의하면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2023년 기준 약 72.8%로 심화되는 추세³⁰⁾

27) <https://www.broekmanlogistics.com/insight/how-yemens-houthi-attacks-in-the-red-sea-are-affecting-cargo-prices-and-delivery-times/#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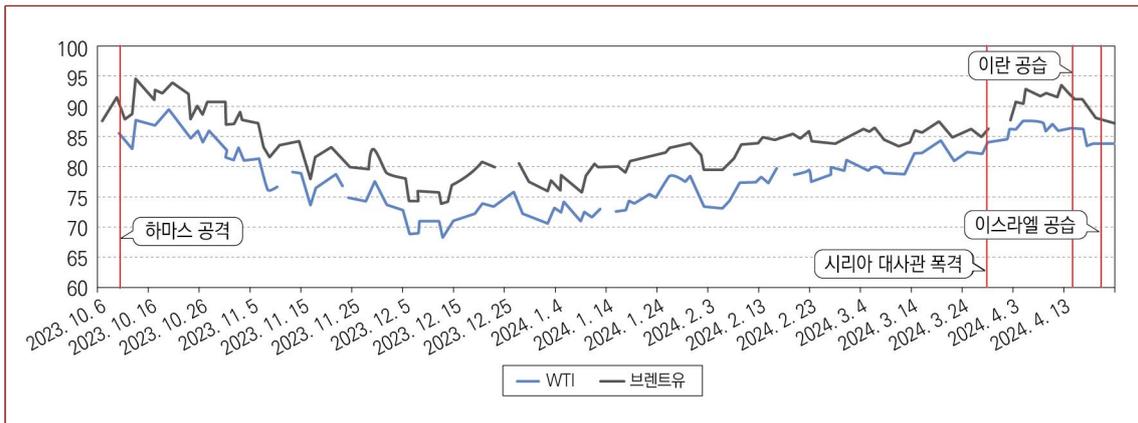
28) <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business/2024/01/16/shipping-houthi-attack-energy-prices/>

29) 주원(2022), OECD 1위의 경제 원유 의존도, 그 개선이 시급하다, 현대경제연구원, p. ii.

30) https://www.kiep.go.kr/aif/issueDetail.es?brdctcsNo=357216&mid=a30200000000&search_option=&search_keyword=&

- 이는 우리 제품의 상대 가격을 올려 산업경쟁력을 약화하고 소비 감소와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
- 유가는 분쟁 발생 시 90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하락하는 경향을 반복하고 있으며,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유가가 90달러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
 -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산유국이 아님에도 전쟁의 장기화 및 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
 - *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유조선 지수인 발틱 더티 탱커 지수(BDTI)는 하마스 공격 이후 급등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³¹⁾
- 브렌트유 기준 원유 1배럴당 가격은 하마스 공격 이후 전일 대비 약 4.0%, 2023년 공격 이전 평균 유가 대비 11.2% 상승
 - * 에너지 인텔리전스(Energy Intelligence)에 의하면 배럴당 최소 3~5달러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내재되어 있으며, 공격이 발생할 시 10달러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³²⁾
 - 하마스 이스라엘 간 휴전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 유가가 80달러 선까지 하락했으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재반등할 가능성도 상존
 - 올해 상반기 유가를 소시에테제네랄(Societe Generale)은 91달러, JP모건은 90달러 수준으로 전망³³⁾

〈그림 1〉 국제 유가 추이



자료: EIA 유가 데이터.

search_year=&search_month=&search_tagkeyword=&systemcode=05&search_region=&search_area=¤tPage=1&pageCnt=10

31) <https://www.cello-square.com/en/blog/view-952.do>

32) <https://www.energyintel.com/0000018e-a994-d183-abef-afd75ebb0000>

33) <https://www.reuters.com/markets/commodities/iran-attack-israel-spurs-banks-hike-oil-price-forecasts-2024-04-15/>

▣ 유가의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상반

- 이번 전쟁의 유가 관련 변수는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과 전면전 전개 가능성
- 이란 제재가 집행될 경우 OPEC+가 충격을 상쇄하지 않는 한 공급이 크게 위축될 우려
 -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약속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있어 유가 상승에 민감하고, 제재 시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재를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편
 - *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백악관은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³⁴⁾했으나 석유 제재는 배제
 - 하지만 대선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유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 있음.
 - *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가를 크게 건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허용 대신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보다 용인 가능한 수준의 옵션
- 향후 유가 상승 여력과 지속 기간은 공급 차질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호르무즈 해협³⁵⁾이 봉쇄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
 - 세계은행은 러-우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전쟁이 확대되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

〈표 4〉 전쟁 진행 양상에 따른 유가 전망

단계	유사 사례	공급 감소	공급 감소량(b/d)	배럴당 유가(브렌트유)
소규모 공급 차질	리비아 내전(2011. 2~10)	2%	50만~200만 배럴	93~102달러
중규모 공급 차질	이라크 전쟁(2003. 3~12)	3~5%	300만~500만 배럴	109~121달러
대규모 공급 차질	1973년 OPEC 금수 조치	6~8%	600만~800만 배럴	140~157달러

자료: World Bank(2023), Commodity Markets Outlook: Under the Shadow of Geopolitical Risks.

- 전망치에 차이는 있으나 이란 참전 시 기관들은 유가를 100달러 이상으로 예상
 - * 리포우 원유협회(Lipow Oil Associates)는 이란의 석유 생산이나 수출 시설에 대한 공격 시 100달러, 호르무즈 해협 폐쇄 시 120~130달러로 유가를 전망³⁶⁾

34)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(OFAC)과 상무부 산업안보국(BIS)은 미사일 관련 개인과 단체를 특별 제재 대상자(SDN) 명단으로 지정하고, 관련 기술에 대한 이란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, <https://www.whitehouse.gov/briefing-room/statements-releases/2024/04/16/statement-by-national-security-advisor-jake-sullivan-on-holding-iran-accountable-for-unprecedented-attack-on-israel/>

35) 전 세계 원유 화물의 약 25%와 LNG 화물의 20%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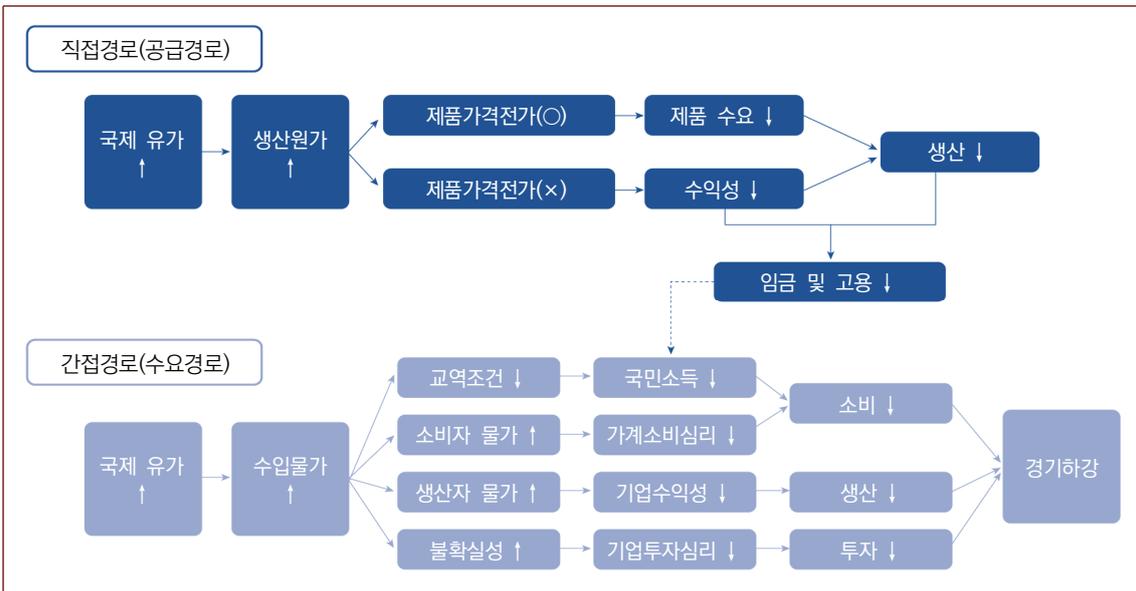
36) <https://www.cnn.com/2024/04/15/oil-prices-could-surge-above-100-after-irans-first-attack-on-israel.html>

- *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150달러³⁷⁾, 소시에테제네랄(Societe Generale)은 140달러 이상³⁸⁾으로 예측
- 이에 반해, 수요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존재
- * 2024년 소비 증가율은 하루 120만 b/d, 최대 150~190만 b/d로 예상되어 OPEC+는 유가를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생산 능력을 보유³⁹⁾
- * 커먼웰스은행(Commonwealth Bank)의 이사인 비벡 다르(Vivek Dhar)는 석유 공급이나 운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 언급⁴⁰⁾

▣ **유가 상승 시, 비용 상승 압력은 정유, 화학, 도로운송, 항공운송 등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**

-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은 중간재 구입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여타 산업으로 전이

〈그림 2〉 국제 유가의 경제적 파급 영향



37) <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features/2023-10-12/israel-hamas-war-impact-could-tip-global-economy-into-recession>
 38) <https://www.reuters.com/markets/commodities/iran-attack-israel-spurs-banks-hike-oil-price-forecasts-2024-04-15/>
 39) <https://oilprice.com/Energy/Crude-Oil/Javier-Blas-10-Things-Oil-Traders-Need-to-Know-About-Irans-Attack-on-Israel.html>
 40) <https://www.cnn.com/2023/10/09/brent-wti-prices-jump-after-hamas-attack-on-israel.html>

- 유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균형가격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⁴¹⁾
 - * 세계은행이 추정한 유가 시나리오의 중앙값을 사용했으며 타 기관들의 분석 결과를 준용하여 소규모 수급 차질을 국지전이 빈발하는 상황, 중규모 수급 차질을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, 대규모 수급차질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상황으로 가정
-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국지전 지속으로 유가가 배럴당 97.5달러까지 상승할 경우, 전 산업 0.7%, 제조업 1.2%, 서비스업 0.32%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
 - 생산비 상승이 석유제품(11.0%) 및 화학제품(1.8%), 운송업(1.3%), 비금속광물제품(0.8%) 순으로 클 것으로 분석
 - * 석유제품 중에서는 나프타(13.5%), 제트유(12.5%), 정제유(12.1%)가 화학제품 중에서는 유분(6.0%), 중간재(4.2%)의 생산비용 상승이 높을 것으로 분석
 - * 운송업 중에서는 항공(2.3%), 도로(2.1%)운송이 비금속광물제품 중에서는 아스팔트(4.0%), 레미콘(0.9%), 콘크리트(0.7%) 등에서 생산비용 상승이 예상
-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유가가 115달러까지 상승할 경우, 전 산업 1.49%, 제조업 2.57%, 서비스업 0.69%의 생산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
 - 석유제품(23.7%) 및 화학제품(4.0%), 운송업(2.8%), 비금속광물제품(1.7%) 순으로 생산비 상승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
-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유가가 약 148.5달러까지 상승할 경우, 전 산업 3.02%, 제조업 5.19%, 서비스업 1.39%의 생산비용 상승이 추정
 - 석유제품(47.9%) 및 화학제품(8.0%), 운송업(5.6%), 비금속광물제품(3.5%), 농림수산업(1.8%), 전력 및 가스(1.8%) 순으로 클 것으로 예상
- 제조업의 생산비 상승률이 서비스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
 - 제조업 중 원유를 주 원자재로 사용하는 정유산업이 가장 높은 비용 상승 압력에 직면
 - 서비스업 중 연료비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운송 산업의 원가 상승률이 가장 급증
 - * 2022년 화물차의 총지출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4.0% 수준⁴²⁾

41) 원유의 가격 변동은 이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모든 상품 가격에 변동을 가져오고, 이를 다시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침. 유가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균형가격모형을 사용하여 이를 계산함.

$$p^d = (I - A^d)^{-1} A^m p^m$$

여기서, p^m 은 원유의 가격변동률 벡터를 의미하며, 원유의 가격이 10% 상승하고 여타 수입품 가격은 불변일 경우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$(I - A^d)^{-1} p^m$ 에 원유가격변동률 열벡터(0, ..., 0, 10, 0, ..., 0)를 곱하여 구할 수 있음.

42) 한국교통연구원(2023), 「2022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 보고서」, p. 47.

〈표 5〉 유가 상승 시 산업별 생산비 상승 효과

단위: %

	97.5달러	115달러	148.5달러
농림수산업	0.40	0.87	1.75
광산업	0.34	0.72	1.47
음식료품	0.30	0.65	1.31
섬유 및 가죽제품업	0.33	0.71	1.43
목재 및 종이, 인쇄	0.39	0.83	1.69
석유제품	11.04	23.68	47.90
화학제품	1.84	3.95	8.00
비금속광물제품	0.82	1.75	3.54
1차 금속제품	0.21	0.45	0.90
금속가공제품	0.26	0.56	1.14
컴퓨터, 전자 및 광학기기	0.13	0.28	0.57
전기장비	0.28	0.59	1.20
기계 및 장비	0.22	0.48	0.97
운송장비	0.32	0.68	1.38
기타 제조업 제품	0.34	0.73	1.48
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	0.26	0.56	1.13
전력, 가스 및 증기	0.39	0.84	1.70
수도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	0.43	0.91	1.84
건설업	0.31	0.68	1.37
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업	0.38	0.81	1.63
운송서비스업	1.29	2.77	5.60
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	0.29	0.62	1.25
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	0.14	0.31	0.62
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	0.09	0.20	0.40
부동산서비스업	0.10	0.20	0.41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0.27	0.58	1.16
사업지원서비스업	0.16	0.35	0.71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업	0.19	0.41	0.83
교육서비스업	0.21	0.45	0.91
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0.29	0.62	1.26
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0.24	0.51	1.02
기타 서비스업	0.29	0.61	1.24
기타업	0.40	0.85	1.72

자료: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에 기초하여 저자 산출.

- 전력, 가스 부문은 연료비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
 - 원유를 이용한 발전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액화천연가스 장기계약 가격이 유가와 연동되기 때문⁴³⁾

43) 가스공사의 장기 계약물량 중 천연가스 가격에 연동되는 물량은 8%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. <https://news.einfomax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02945>

- 농림수산업은 하우스 재배용 보일러 연료, 하우스 피복재, 어선 연료 등의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
 - 농업 부문보다 수산업 부문의 생산비 상승이 더 큰 것으로 분석

4. 시사점

▣ 단기적으로는 확전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미 대선 이후에 대한 관찰이 필요

-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수출입,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보다 물류비, 유가 등 간접적인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
- 단기적으로 전면전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나 이스라엘의 행보가 미국과 어긋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 필요
- 지금과 같이 국지전이 빈발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미 대선 이후 추이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
 - 또한 확전 시 사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 전개 가능성을 점검하고,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
 - * 확전 시,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 둔화가 초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
 - * IMF는 석유 가격이 10% 상승하면 1년 후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은 0.4%포인트, 생산량은 0.15%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추정
 - * 블룸버그는 확전 시,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1.2%포인트 오르고, GDP는 1.0%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

▣ 일부 산업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전쟁 추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

- 유가 상승으로 해양플랜트, 유조선, 건설 등 일부 산업에서는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향후 추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
 - 배럴당 유가가 70달러 이상인 경우 해양 플랜트와 유조선 발주가 늘어나는 경향
 - * 클락슨리서치에 의하면 2023년 최종투자결정 금액은 약 1,705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최대 규모이며 원유 운반선 발주는 2023년 8월 기준 41척(124만 CGT)⁴⁴⁾

44) <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1002013600003>

- 산유국들의 자금이 넉넉해지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산유국들의 건설 발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
 - * MEED에 의하면 2023년 우리나라의 중동 건설시장 계약액은 2,537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⁴⁵⁾, IHS마켓은 2024년 중동 건설시장이 10.3% 성장할 것으로 전망⁴⁶⁾
- 단,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과 중동 분쟁이 심화될 시 발주 자체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
■ 우리나라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

-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정자금 등을 적절히 활용해 대응
 - 지정학적 요인 외에도 공급량 관련 변수가 많아 중장기적인 예측이 어려우나 고유가의 장기화 속에서 심한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
 -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에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요청하는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용구조에 대한 전환이 필요
 - 또한 생산비 상승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영세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자금 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
- 장기적으로는 유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는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
 - 유가 상승 시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할 우려가 있어 가격 인상에 대비하고 공급망을 점검할 필요
 -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가 상승에 취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선의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탄소중립 추세와도 일치

빙현지 통상전략실 | 전문연구원 | anissabing@kiet.re.kr | 044-287-3950

45) 정지훈(2024), “역대 최고 계약액을 기록한 '23년 중동 계약현황 분석 및 '24년 전망”, 해외건설협회, p. 2.

46) https://www.hdec.kr/kr/newsroom/news_view.aspx?NewsSeq=964&NewsType=FUTURE&NewsListType=news_list

